

대한정형외과학회 창립 20주년을 맞이하여

대한정형외과학회 회장

주 정 빈

Reflections on the Past and a Challenge to the Future

—On the Occasion of the 20th Anniversary—

Chung-Bin Chu, M.D. D.M. Sc., F.I.C.S.

President, Korean Orthopaedic Association

우리 학회는 어언 20회째 되는 생일을 맞이하였습니다. 스무살이면 성인이 되었습니다. 성인 이면 학습을 통하여 인격이 완성되었을때 입니다. 그리고 전진에 문턱에서 새출발을 기약할때라고 보여집니다. 양양한 앞길이 펼쳐져 있을뿐입니다.

우리는 생일을 맞이하는 의의가 어디 있는지생 각해 봅니다. 첫째로는 우리를 이 세상에 낳으시고 오늘에 우리가 존재하게한 어버이께 감사하여야 할 날이라고 봅니다. 오늘 스무살의 생일을 맞는 우리 학회는 이 학회를 20여년전에 낳으신 어버이가 되시는 선배 여러분께 다 같이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 그후 우리를 입히고 먹여서 키워주신어버이가 되시는 그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지 않을수 없습니다. 이분들의 거침은 손을 만지며 선구적 노고에 경의와 감사를 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생일을 맞이하는 그 둘째의 의미는 우리의 지나온 발자취를 살펴보는 일일 것입니다. 우리 학회 정관에 의하면 정형외과학 발전과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는 두가지가 그 목적인 것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학술연마에 게으름이 없었던가 과연 국가 민족이나 인류에게 기여한 업적을 그동안 몇편이나 내놓았던가 또 우리는 친목을 도모하는데 방관적이었던 점은 없었던가 우리가 처리하여온 일은 전부 바르게만 되어왔던가 과거의 우리에게는 무엇이 부족 하였

든가.

그 동안에 학회 회원수는 정회원 419명 준회원 185명 도합 600여명에 달하였으며 1000편 이상의 학술논문이 연구 발표되었고 많은 파란곡절을 겪고 때로는 서로 서로 힘을모아 보기도 여러번 하였다고 믿어집니다. 그러나 소아에 사로잡혀 대아를 잊고 우리 학회 전체적인 것이나 먼 후일을 생각하는데 인색한 일은 없었는지 여러분이나 본인은 모두 눈을감고 조용히 생각해 봅직합니다.

발전을 기원하면서 우리가 다같이 노력을 하며 애겨온 우리나라의 그동안의 정형외과 학계는 몇 단계로 구분될수 있다고 봅니다. 첫째단계는 정형외과의 초창기 이전으로서 정형외과의 전문의라고는 거의 존재하지 않을때입니다. 정형외과의 진료는 일반외과에서 일률적으로 다루워 졌던때입니다. 독립된 과로 혹은 교실로는 아직 생각지도 않고 있을때이고 학문적으로도 미약하고 비전문화로 개활적인데 그쳤습니다. 이미 선진 외국에 유학하시어 정형외과학을 전공하신 우리의 대선배 되시는 이용설 선생님은 그때로서는 예외적인 존재이시었다고 봅니다.

둘째단계는 해방이 되면서 비로소 정형외과학의 전문에 눈을 뜨기 시작하였고 우리는 주로 미국의 군의관과 의학서적을 통하여 광범위하고 전문화된 이 영역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더구나 6.25 전쟁을 통하여 우리는 부지기수의 정형외과

환자를 다루지 않으면 안되었든 것입니다. 싫던 좋던간에 우리는 정형외과학을 배우지 않으면 안 될 운명에 부딪혔읍니다. 우리나라 의학 전반에 걸쳐서 6.25 전쟁은 그 발전의 큰 계기가 되었다고 봅니다마는 특히 정형외과에서는 이것이 사실이라고 믿어집니다.

1949년에 연세의대의 문병기 회장과 이미 고인이 되신 서울의대의 김장성 선생님은 도미 유학을 하시었고 1952년에는 본인과 부산의 이종덕 선생님이 군의관의 신분으로서 정형외과학 전공을 위하여 미국으로 파견되기 시작하였읍니다 그 후 군이나 대학에서 또 개인적으로 구미 선진국으로 많은 유학을 가게 되었습니다. 정형외과의 독립된 교실은 1953년 4월에 세브란스 의과대학에 처음으로 문병기 선생님을 통하여 창설 되었습니다. 이후 여러 대학에서도 점차 완전한 독립된 교실로 발전하여 현재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 기간중에 우리는 주로 발전된 선진 외국의 정형외과학의 교과서적인 것을 우선 흡수 하는데 힘을 다하였던 것으로 보아집니다. 그리하여 이미 1960년대 중반에 우리나라 정형외과 학제는 기구적으로나 수적으로나 학술적으로 기틀이 잡히게 되었다고 봅니다.

그 다음으로는 우리가 제3단계에 들어서야했다고 봅니다. 1960년대 후반에서 부터는 이러한 바탕위에서 우리 학회는 도약할수있는 단계가 되었다고 본인 나름대로 기대하여 왔읍니다. 그러나 10여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도약으로 볼만한 변화는 우리 학회에서 찾아볼수 없는 상태에 있습니다. 우리는 아직도 선진 외국의 그것을 배우는데 맴돌고 있습니다. 우리의 창작이 너무나 빈약하다고 느껴집니다. 어쩌면 우리는 영영 창작하지 못하는 학회가 되어 버리지나 않을까 두렵습니다. 언제까지나 우리가 일본것이나 미국것을 배우는 데만 정력을 탕진하는 학생적인 학자가 되어서는 안될것입니다. 그렇다고 남의것을 배우는것을 소

홀히 하여도 좋다것은 물론 아닙니다.

우리는 아직도 본인이 생각하는 제3단계에 들어서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창작적 연구 업적에 좀더 노력하여야 하겠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국가 사회의 뒷받침이 구비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렇지가 못하고 여기에는 현재로서는 결함이 있는것 같습니다. 때로는 오히려 이를 저해하는 요소 마져 있다고 보여질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는 아이가 젖을 얻어 먹는다고 합니다. 우리들이 보채야 해결될 문제가 많습니 다.

또 국제적 모임에 참여하여 경험도 많이 얻어야 하겠읍니다. 세계의 현대문명은 국경이 없습니다. 지리적 거리가 극히 가까워졌읍니다. 동서양은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 하나입니다. 이미 폐쇄적이니 개방적이니 하는 상대적인 낱말은 없어졌읍니다. 우리는 모두 국제적입니다. 우리는 좋던 싫던 이 조류에 휩쓸리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는 하루 빨리 눈을 떠야 하겠읍니다. 우리는 세계를 향하는 학회가 되어야 하겠읍니다.

결론적으로 말씀 드리자면 우리 학회는 여러선배님들과 학회 회원 여러분의 노고에 의하여 이 시점까지 커졌읍니다. 20주년을 맞는 이 마당에 우리 서로 크게 경하하여 맞이 않습니다. 현대문명은 항상 세계적인 것인데 우리 학회가 크게 발전하려면 대한민국적인 것이 아니라 세계적인 것으로 지향하여야 하겠고 배우는데만 급급한 입장을 탈피하고 창작적인 업적이 많이 나오게 될때 우리는 선진국 대열에 끼는 대한정형외과학회가 된다고 봅니다. 이것은 여러 회원 한사람 한사람이 방관적인 자세로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이 학회의 살림살이 하나 하나에 여러분들이 다같이 적극 참여 하는데서만 이루어지리라 믿어집니다. 우리 대한정형외과학회 만세 만세 만세 고맙습니다.

1976년 4월 16일